

## 1. 서론

금년 들어 한·미 FTA의 이해득실을 놓고 상반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교역의 비중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대외의존 성향이 강한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세계 최대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FTA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다만, 치밀한 준비 없이 추진할 경우 한·미 FTA의 협상이 경제적 이익보다는 국내 경제의 양극화 문제 등의 부작용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반대의 주요 논점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과 FTA를 추진할 경우 우리의 취약한 산업기반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반대론에도 불구하고 금년 6월 들어 한·미간에 FTA의 본 협상이 추진되고 있다. 대안 없는 비판이 불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한·미 FTA에 따른 글로벌 경쟁이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계층을 대상으로 사전에 FTA의 영향을 점검하고 관련대책을 강구하는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한·미 FTA에 따른 글로벌 경쟁에 크게 노출될 것으로 우려되는 계층으로 중소기업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와 산업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중요 집단이지

\*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e-mail: yjlee@kiet.re.kr)

만, 경제적 약자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경쟁에 방치될 경우 부정적 효과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확산될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의 관련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한·미 FTA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한·미 FTA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소기업들이 한·미 FTA를 통해 경쟁력 향상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으로 산업연구원이 실시한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모델의 계량적 방법에 의한 거시 분석 결과와 중소기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병행하여 활용하고자 한다<sup>1)</sup>.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우리 정부가 향후 수차례에 걸쳐 미국과 전개할 FTA 협상에서 중소기업의 입장을 감안한 협상카드를 마련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협상 전략을 추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FTA 시대의 생존 전략을 수립하는데 본 연구가 이정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산업별 영향

한·미 FTA는 양국간 수입관세의 철폐와 같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인하, 투자자유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는 산업 전반의 수출증대와 생산증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중소기업 차원에서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교역통계가 공식적으로 중소기업 차원

〈표 1〉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에 대한 거시분석 결과

|             |    | 산업의 중소기업 비중                             |                     |
|-------------|----|---|---------------------|
|             |    | 높 음                                     | 낮 음                 |
| 한·미 FTA의 영향 | 긍정 | 섬유, 의복, 가죽제품, 목재제품, 기타(생활용품, 잡제품), 음식료품 | 자동차                 |
|             | 보통 | 화학·고무·플라스틱제품, 조립금속제품                    | 철강제품, 석유·석탄제품, 전자제품 |
|             | 부정 | 종이·인쇄제품, 기타 광물제품, 기타 금속제품, 기계장비         | 기타 운송장비             |

자료: 국민경제자문회의, 「FTA와 한국경제」, 2006.

주: 1) 산업의 영향은 생산 및 수출이 플러스 증가일 경우 긍정, 생산 및 수출이 마이너스 증가일 경우 부정으로 분류  
2) 산업의 중소기업 비중은 부가가치 및 고용의 비중이 50% 이상이면 높음, 50% 미만이면 낮음으로 분류

## 정책초점

〈표 2〉 미국의 관세 폐지시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단위: 천 달러, %)

|               | 미국관세율      | 미국시장점유율 |      | 수출증가율     | 대미 수출액  |
|---------------|------------|---------|------|-----------|---------|
|               |            | 2000    | 2005 | (2000~05) | (2005)  |
| 모직물           | 17.5(20.9) | 4.6     | 6.4  | 2.2       | 8,775   |
| 날염면직물         | 9.1(8.4)   | 18.8    | 35.8 | 14.2      | 93,894  |
| 텍스춰드 폴리에스터직물  | 14.2(14.7) | 25.7    | 12.3 | -17.4     | 15,882  |
| 비텍스춰드 폴리에스터직물 | 13.6(14.9) | 38.2    | 39.6 | -8.1      | 81,950  |
| 편직물           | 10.4(11.8) | 23.8    | 24.0 | 0.6       | 246,164 |
| 혼방 폴리에스터직물    | 12.0(12.0) | 5.7     | 17.6 | 46.6      | 11,241  |
| 양 말           | 11.5(14.0) | 11.2    | 18.1 | 18.6      | 249,534 |
| 스웨터           | 11.9(25.3) | 4.4     | 1.6  | -15.1     | 212,300 |
| 남성셔츠          | 14.7(21.1) | 5.2     | 2.2  | -12.0     | 200,958 |
| 여성용바지         | 14.0(18.6) | 2.5     | 0.7  | -19.1     | 65,965  |
| 티·언더셔츠        | 19.7(19.8) | 0.7     | 0.9  | 10.0      | 37,972  |
| 운동복           | 13.1(16.0) | 3.2     | 0.7  | -24.5     | 13,982  |

자료: 국민경제자문회의, 「FTA와 한국경제」, 2006.

- 주: 1) 수출증가율은 2000~05년 기간 동안의 연평균증가율  
 2) 중소기업 품목만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대기업 생산 품목 제외  
 3) 미국관세율은 단순평균이고, ( )안은 가중평균임.

에서 산업별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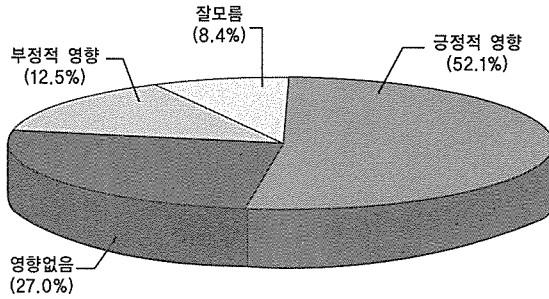
이와 같은 제약을 감안할 때, 두 단계에 걸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중소기업과 같은 규모에 대한 구분 없이 한·미 FTA의 거시적 산업별 영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산업별 중소기업의 비중<sup>2)</sup>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미칠 거시적 산업별 영향을 추론하는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섬유·의복, 가죽, 음식료, 목재, 생활용품 등과 같이 한·미 FTA의 영향이 긍정적인 동시에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및 생산 증가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표 1〉 참조). 특히, 섬유산업의 경우 대부분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대미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수입관세가 높은 이유로 인해 수출증대의 긍정적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텍스춰드 폴리에스터직물과 비텍스춰드 폴리에스터직물, 날염 면직물, 혼방폴리에스터직물 및 양말, 편직물, 스웨터, 남성셔츠, 여성용바지 등에 대한 미국의 고관세 철폐가 우리의 섬유산업에 긴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표 2〉 참조). 반면에, 한·미 FTA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산업으로 광물제품, 금속제품, 기계장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산업은 한·미 FTA의 영향이 부정적인 동시에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아서 중소기업의 수출 및 생산 감소 등이 우려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표 1〉 참조).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한·미 FTA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음을

〈그림 1〉 한·미 FTA가 중소기업의 경영전반에 미칠 영향



|        | 긍정적 영향 | 영향 없음 | 부정적 영향 | 잘 모름 |
|--------|--------|-------|--------|------|
| 섬유의류제품 | 68.6   | 11.4  | 14.3   | 5.7  |
| 운송장비   | 60.0   | 10.0  | 30.0   | 0.0  |
| 자동차부품  | 58.8   | 15.7  | 7.8    | 17.7 |
| 전기전자제품 | 55.3   | 25.7  | 11.8   | 7.2  |
| 일반기계   | 53.7   | 27.8  | 14.8   | 3.7  |
| 기타제조업  | 49.1   | 31.8  | 10.9   | 8.2  |
| 금속제품   | 46.8   | 36.2  | 8.5    | 8.5  |
| 철강     | 46.7   | 33.3  | 0.0    | 20.0 |
| 화학제품   | 45.0   | 35.0  | 13.3   | 6.7  |
| 음식료품   | 45.0   | 20.0  | 30.0   | 5.0  |
| 나무제품   | 14.3   | 14.3  | 28.6   | 42.8 |
| 가죽제품   | -      | 100.0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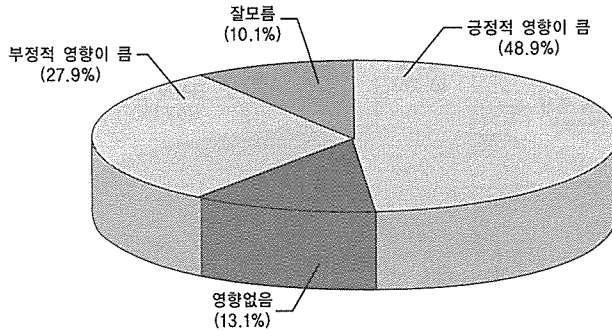
자료: 국민경제자문회의, 「FTA와 한국경제」, 2006.

시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전기전자, 섬유, 화학공업, 철강, 플라스틱·고무제품 등이 긍정적 영향 정도가 높거나 보통인 그룹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계류의 경우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어 동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한·미 FTA로 인해 어려움을 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미 FTA의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1,199개 중소기업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도 지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대상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52.1%의 중소기업들은 한·미 FTA가 경영전반에 미칠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12.5%에 불과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산업별로 구분하여 보면, 기계류, 나무제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시분석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참조). 또한 중소기업들은 한·미 FTA가 중소기업의

〈그림 2〉 한·미 FTA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자료: 국민경제자문회의, 「FTA와 한국경제」, 2006.

경쟁력 제고에 기여(48.9%)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다수 동의하는 반면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경우는 2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이와 같이 중소기업들이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미국산 수입품과의 경쟁관계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역, 기술, 자본 등에서 미국과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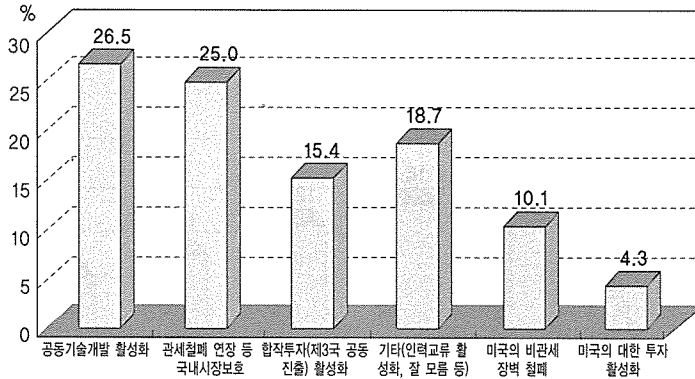
한편, 자동차, 기타 운송장비, 전자, 섬유, 의복, 가죽 등과 같이 하도급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의 경우는 거시분석이나 설문조사에서 기대했던 결과와 달리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모거래 대기업이 한·미 FTA에 대응하여 어떠한 제세를 보이느냐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모거래 대기업이 경쟁격화의 부담을 하도급 중소기업에 과도하게 전가하거나, 미국산

수입제품 사용을 확대하는 등의 거래선 전환을 단행할 경우 중소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입게 될 개연성이 있다.

### 3.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수요

한·미 FTA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교역확대만으로 부족하고 투자확대를 수반하는 산업기술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전환점으로 작용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적 문제점인 자원부족의 한계점을 보완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중소기업들도 한·미 FTA를 계기로 양국간 공동기술개발 활성화(26.5%)를 위한 산업협력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그림 3〉 참조). 공동기술개발 활성화의 경우에는 운송장비, 전기전자제품, 기타 제조업, 일반기계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 참조). 양국간 공동기술개발 활성화를 선호하는 응답(26.5%)이 관세철폐 등 시장보호조치(25.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 중소기업을 위한 한·미 FTA의 중점 협상 분야



자료: 국민경제자문회의, 「FTA와 한국경제」, 2006.

〈표 3〉 업종별 중소기업의 협상 수요 분야

| 협상 수요 분야                          | 해당 협상수요가 높은 업종                                   |
|-----------------------------------|--|
| 우리 중소기업과 미국기업간 공동 기술개발 활성화        | 운송장비, 전기전자제품, 기타 제조업, 일반기계                       |
| 우리 중소기업과 미국기업간 합작투자(제3국 공동진출) 활성화 | 운송장비, 가죽제품, 나무제품, 전기전자제품                         |
| 미국의 비관세장벽 철폐                      | 섬유 및 의류제품, 화학제품, 철강제품, 금속제품                      |
| 국내 관세 철폐 기간 연장 등 국내시장보호           | 음식료품, 자동차부품, 섬유 및 의류제품, 나무제품, 전기전자제품, 화학제품, 철강제품 |

자료: 국민경제자문회의, 「FTA와 한국경제」,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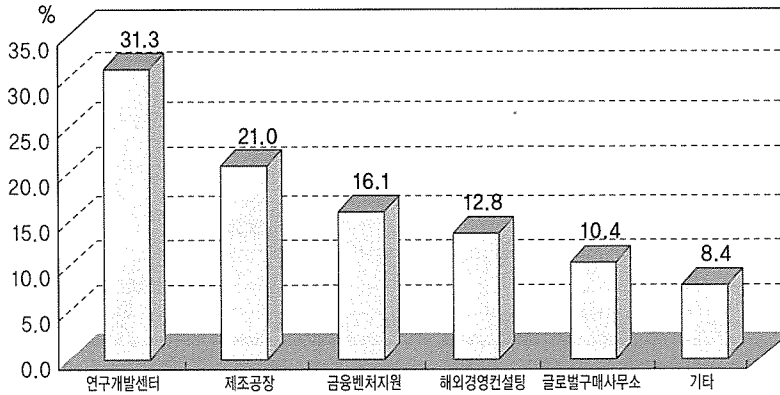
는 사실이 미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미국의 투자진출이 이루어질 경우 연구개발센터(29.5%), 제조공장(21.0%), 금융지원(16.1%) 등의 순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확대되기를 희망하는 등 R&D, 생산 등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능을 중심으로 미국의 투자진출이 강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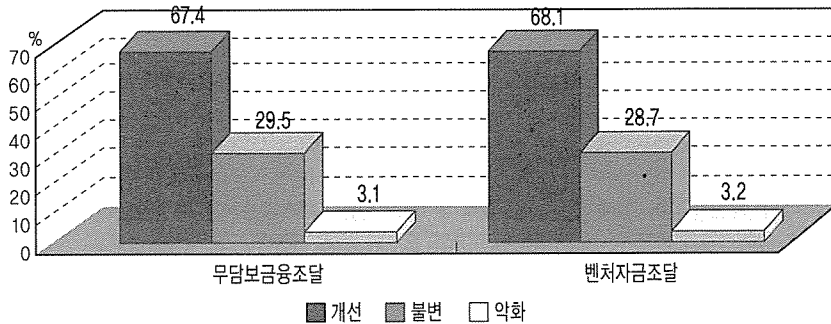
미국의 금융기관과 벤처캐피탈 회사의 국내 진출이 확대되기를 희망하는 이유도 미국의 금융기관과 벤처캐피탈회사들이 선진 기업 평가시스템, 첨단 리스크 헷지 기법 등을 가지고 국내에 진출하여 무담보 대출을 확대할 경우 기술 또는 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의 자금 지원수요를 충족시켜 주어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미 FTA가 중소·벤처기업의 금융조달

〈그림 4〉 한·미 FTA 체결 후 미국에 대한 투자진출 요청 분야



자료: 국민경제자문회의, 「FTA와 한국경제」, 2006.

〈그림 5〉 한·미 FTA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환경 개선효과



자료: 국민경제자문회의, 「FTA와 한국경제」, 2006.

환경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기대는 벤처기업 (68.1%)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그림 5〉 참조).

#### 4.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 1) 기술 및 투자 협력 활성화

한·미 FTA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상대적 기술우위분

야에서 기술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제품개발이 필요한 품목 중 국내 원천기술이나 핵심 설계기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미국으로부터의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화력발전용 터빈/제너레이터 중 블레이드 곡면(Vane Profile)이나 최종익 (Last Stage Bucket) 등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되는 부품의 설계 및 제작기술 등의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중소기업은 기술자립에

〈표 4〉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중점 지원 대책 분야

(단위: %)

| 구 분                              | 분야    |
|----------------------------------|-------|
| 유망사업 집중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전문화           | 26.5  |
| 한·미 산업기술협력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참여 지원     | 21.3  |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통한 공동 대응력 제고   | 19.5  |
|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 등 미국시장 개척 | 17.1  |
| 기타                               | 8.8   |
| 중소기업에 대한 고급 전문 인력 공급 원활화         | 5.3   |
| M&A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대형화             | 1.5   |
| 합 계                              | 100.0 |

자료: 국민경제자문회의, 「FTA와 한국경제」, 2006.

필요한 비용 절감 및 소요기간 단축, 중국·인도·동남아 등에서의 수주 확대, 국내 기술 기반의 성장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한·미 FTA를 계기로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이 많아질 경우 미국의 자동차업체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진출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R&D 센터, 제조공장, 구매사무소 등의 유치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개발, 생산, 구매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T, BT, NT 등 신기술산업과 부품·소재

산업 등은 세계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간주하여 한·미간 투자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기존 지원시책과의 연계 지원 강화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 전문화(26.5%), 한·미 산업기술협력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21.3%),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통한 공동 대응력 제고(19.5%),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17.1%) 등을 중심으로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표 5〉 미국의 관세 인하에 따른 대미 수출증대효과가 미미한 이유

(단위: %)

| 구 분                              | 응답률   |
|----------------------------------|-------|
| 대미수출은 관세 등의 가격보다는 품질 등에 좌우되기 때문에 | 14.6  |
| 유통기반 등 미국시장에서의 마케팅 능력이 취약하여      | 14.2  |
| 관세 철폐에 따른 인하 폭이 낮아서              | 8.3   |
| 비관세장벽 등 미국시장에 대한 구조적 접근이 어려워서    | 3.0   |
| 이미 미국의 수입관세가 무관세이기 때문            | 2.9   |
| 기타(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 미미 등)            | 57.0  |
| 합 계                              | 100.0 |

자료: 국민경제자문회의, 「FTA와 한국경제」, 2006.



(〈표 4〉 참조). 이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 등과 같은 기존의 지원시책들이 한·미 FTA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으로 유효함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미국의 정부조달시장은 연간 3,300억 달러의 규모에 달하고 있어 해당 시장에 중소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경우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수출증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진출, 우리 중소기업과 미국기업간 합작사업 추진 등 산업기술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미국의 첨단기술과 선진 경영기법이 중소기업에 이전·확산되는 스피로버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노력이 뒷받침될 때, 중소기업들이 한·미 FTA로 인한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경제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기반확충  
한·미 FTA로 인한 대미수출 증대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결과, 미국에 대한 미미한 수출비중, 품질의 중요성, 유통기반 등 마케팅 능력 취약 등을 지적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표 5〉 참조). 이러한 결과는 한·미 FTA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역장벽이 인하된 미국시장이 창출하는 교역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수출 중소기업이 더욱 많아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품질경쟁력 확보, 현지 유통 네트워크 참여 등과 같은 비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관련 노력이 강

화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중소기업의 저변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 중국, 동남아 등을 수출시장을 삼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존 시장에서의 경험을 살려 미국시장 진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들이 한·미 FTA에 힘입어 전세계 제품의 경쟁무대인 미국시장 진입에 성공을 거둘 경우 진입과정에서 습득된 학습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발전(leapfrog of export)을 위한 기반(platform)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미국시장 진출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한·미 FTA에 의한 관세인하만으로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미국시장은 품질, 유통경로 확보 등의 비가격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장임을 감안하여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현지 유통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미국의 정부조달시장 진출, 한·미 산업기술협력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품질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현지 유통 채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게이트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4) 금융, 정부조달시장진출 등 제도적 지원

중소기업은 한·미 FTA 체결로 담보대출 관행이 개선되고 벤처투자가 확대되는 등 금

융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많은 중소기업의 바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유인을 높여갈 수 있도록 신용보증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 벤처투자 협력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장기·안정적인 벤처자본 조성, 벤처캐피털리스트 교육, 중국·인도 등 국가에 대한 공동 벤처투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 등의 선진국 지원 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정부조달지원 전담기관 설립 및 중소기업의 이행보증 채권 발행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어 동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무역조정지원법,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

1) GTAP 모형은 전통적인 무역이론,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 완전경쟁 등의 이론에 기초하여 생산, 소비, 지출 등의 대내경제와 수출, 수입 등의 대외경제를 포괄하는 일반균형모형이며, 미국의 퍼듀대학이 개발한 모형임. 동 모형은 대상국의 산업연관표, 국가간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경제주체별, 산업별, 경제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2) 중소기업의 비중으로 부가가치비중, 고용비중, 하도급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중소기업 주도업종과 중소기업 비 주도업종으로 구분하여 업종별 영향을 추론함.

**【참고문헌】**

국민경제자문회의(2006), 「FTA와 한국경제」.  
 김도훈 외(2005), 「대외개방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관련 농·수산분야 DB 구축방안 연구」, 재정경제부 용역보고서.  
 김도훈 외(2005), 「시장개방과 산업구조조정-FTA 확산과 DDA 협상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박광순 외(2005), 「한·일 FTA가 부품소재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한국산업기술재단 용역보고서.  
 신태용 외(2005), 「한·중 FTA 체결이 한중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 보고서.  
 오영석·황윤진(2003), 「한국산업의 국제분업패턴 분석」,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무역협회(2006), 「한·미 FTA를 통한 대미진출 확대전략 세미나」.